



전남교육청-러시아 콘서바토리-광양시 MOU 체결 모습.

## 전남교육청, 러 콘서바토리 국립음악원과 MOU

창의예술교육 활성화 위한 협약 교수 초청·현지 수업 기회 제공

전라남도교육청이 전남 학생의 창의 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콘서바토리 국립음악원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장석웅 교육감을 비롯한 전남교육청 창의예술교육 국제교류단은 지난 6일(현지시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콘서바토리 국립음악원에서 전남교육청·광양시·콘서바토리 국립음악원(이하 콘서바토리)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전남교육청과 콘서바토리는 이 협약을 통해 콘서바토리 대학 교수들의 한국 창의예술고 학생 교수활동 지원과 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생 교류를 추진키로 했다. 전남교육청은 이를 위해 콘서바토리 교수들의 한국 내 교수 활동 지원과 숙박 제공, 학생 교류 지원

을 약속했다. 또한 콘서바토리는 한국 창의예술고 학생 지도를 위한 교수 파견 및 한국학생 수학 지원 및 숙박 제공 등을 하기로 했다. 광양시는 두 기관의 교류협력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약속했다.

전남교육청은 이번 MOU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방학 중 콘서바토리 교수 2명(피아노 1명, 첼로 1명)이 한국 창의예술고에 파견돼 전공학생을 지도하도록 하는 한편, 한국 창의예술고 학생들이 콘서바토리에 가서 직접 수업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장석웅 교육감은 “콘서바토리와 교류 추진은 전남 학생들의 창의예술교육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협약이 전남 학생들의 창의 예술교육에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교육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남=봉채영 기자

## 53만명이 반했다... ‘대나무 축제’ 성료

풍성한 구성으로 밤에도 ‘낭만 가득’

올해 담양대나무축제가 53만여명이 방문해 ‘명품 축제’ 명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7일 전남 담양군에 따르면 지난 1일 개막해 6일 폐막한 담양대나무축제가 53만여명이 다녀갔다.

담양군 관계자는 “올해 축제는 ‘대숲에 물들다. 담양에 반하다’라는 주제에 맞게 매력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해 5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봄 축제 손색이 없었다”며 “지역주민과 외국인을 포함한 많은 관광객이 다녀가 담양대나무축제의 위상을 증명했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진행한 미디어 파사드 프로그램, ‘뱀부 퍼포즈’는 축제 기간 매일 밤 관광객들에게 호평을 받았다.



/담양군청

군 관계자는 “관광객들은 축제장뿐 아니라 축제가 열리는 죽녹원과 관방제림, 파이프로르간의 선율이 함께하는 문예카페 ‘담빛예술창고’,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메타프로방스 등을 방문하며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즐겼다”고 밝혔다.

/전남 담양=김태수 기자 ts7080@

**오늘의 날씨**

5월 8일 (수)  
음력 : 4월 4일

수도권 날씨  
**22 ~ 10°C**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

연천 6/23, 동두천 8/23, 가평 3/23, 파주 5/21, 서울 10/22, 양평 6/24, 인천 11/18, 수원 9/22, 용인 9/22, 평택 7/23, 백령도 10/18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경남도, 다시 찾는 전통시장 만든다

# 상권 활성화 앞장... 467억 투입

중기부 지원사업 공모에 39곳 선정  
상점가·전통시장 변화와 혁신 이끌어

경남도는 경기침체와 대형 유통업체 진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올해 국비와 도비 등 467억원을 투입한다고 7일 밝혔다.

도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올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 8개 사업, 39곳이 선정돼 국비 322억원을 지원받겠다고 설명했다.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상권 활성화) 사업에 진주 중앙상권 활성화 구역이 선정된 데 이어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창원 도계부부시장, 특성화 첫걸음 기반조성 시장으로 마산어시장·진주 동성상가·창원 가음정시장이 각각 선정된 것이 대표적이다.

상권 활성화 사업은 도심의 쇠퇴한 상권을 활성화하려고 주변 환경 개선과 테마공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 단일시장이나 상점이 위주의 지원 범위를 벗어나 지역 상권 전반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 5년간 80억원이 지원된다.

청년층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전통시장에 접목해 젊은 고객층을 확보하고 전통시장 변화와 혁신을 위한 청년몰 확장 지원사업에 선정된 진주 중앙상지하상가 황금상점과 청년몰 대학협력사업에 선정된 동마산전통시장에 총 11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에도 창원 도계부부시장과 고성 공룡시장, 지리산 함양시장 등 11곳이 선정돼 197억원이 지원된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전통시장 방문객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부터 기존 공동마케팅, 배송서비스, 상인교육, 시장매니저, 컨설팅 지원사업 등이 시장경쟁바우처 지원사업으로 통합 개편돼 상인이 필요한 사업을 상인이 직접 선택하고 지원

받는 체제로 바뀌었다.

도내에서는 총 16곳이 선정돼 8억원을 지원받는다.

올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는 지난해보다 70억원 늘어난 135억원이 투입된다.

모두 54곳에 아케이드, 공용화장실, 소방·전기 등 화재예방 안전시설 등을 개선한다.

도비 지원사업으로는 시장별 특화 아이디어를 발굴 지원하는 1시장 1특화사업에 창원 소담시장, 사천 완사시장, 김해 외동전통시장 등 5곳이 선정됐다.

시장별로 1억원을 지원해 쇼핑환경을 개선한다.

김기영 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정부의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이 성과를 내기 위해 시장 상인 스스로 변화와 혁신을 통한 자구 노력도 필요하다”며 “도에서도 다시 찾는 전통시장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창원=이경화 기자 7470002@metroseoul.co.kr

## 남원시, 체험 만끽하는 ‘춘향제’ 막 올랐다

전통체험·관광참여형 공연 등 마련  
광한루원 부스서 사진대회 참가 접수

사랑의 고장 남원을 사랑으로 물들이는 제89회 춘향제가 막이 올랐다.

축제 첫날인 8일에는 전통공연, 현대국악, 전통체험, 어린이 공연, 관객참여형 공연이 관객들을 맞이한다.

먼저, ‘춘향사랑 그림그리기 대회’와 관객이 함께하는 ‘사랑의 주사위’가 사랑의 광장과 광한루원에서 각각 열린다.

광한루원 앞 몽룡놀이터에서는 ‘별별서커스’와 ‘키즈매직’ 등 어린이 공연이 마련된다.

관객이 함께 참여하는 ‘변사극 춘향전’과 ‘춘향전 주인공 찾기’, 현대국악 ‘춘향제 동서양 음악에 빠지다’가 각각 남원에춘무대에 오른다.

광한루원 앞 차없는 거리에서는 ‘농경체험’, ‘춘향시대 한복체험’을 할 수 있다. 전국 사진 전문가와 동호인 등 1000여명이 참가하는 전국사진촬영대회도 춘향제를 빛낸다. 축제기간 광한루원 부스에서는 사진촬영 참가 접수를 할 수 있다.

승월교무대에서는 남원시립농악단



춘향남원 사랑에 물들다(춘향선발대회)

의 ‘오마이 굿’(오후 5시~6시)이 신명난 한마당을 펼친다. 남원시립농악단의 특별공연인 오마이 굿은 경기도 당국의 타악을 중심으로 구성된 앉은반과 남원농악의 판굿을 새롭게 구성한 선반, 전통연희 중 비나·죽방울과 어우러지는 개인놀이로 신명난 한판을 펼친다.

축제는 밤에도 계속된다. 완월정 무대에서는 춘향제의 하이라이트인 춘향선발대회가 광한루원을 물들인다. 한국 월드뮤직 시장의 가능성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바이날로그의 현대국악 ‘LIVE The SEARCH’가 밤하늘에 울려 퍼진다.

남원시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춘향제기간 주생 화물공영차고지~보건소~승사교4가~구남원역~시청~춘향교를 노선을 왕복 순환운행한다. 차량 968대를 수용할 수 있는 임시주차장도 화물공영차고지, 주생비행장, 보건소에 각각 마련했다.

한편, 남원시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단은 춘향제 기간 5일 동안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희망복지지원단입니다’라는 주제로 춘향제를 찾은 관광객 및 시민을 대상으로 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홍보를 펼칠 계획이다.

/전남 남원=봉채영 기자 bcy2020@

## 익산 원광대병원,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기관 선정

2021년까지 13억3800만원 지원

원광대병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전라북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기관에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선정에 따라 원광대병원은 1단계로 2021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13억 3800만 원을 지원받아 센터 리모델링

과 전문 인력을 채용해 오는 7월 개소할 예정이다.

센터는 익산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비롯한 도내 재활기관과 연계해 장애인 건강보건, 여성장애인 모성보호사업, 보건의료인력 및 장애인 가족에 대한 교육, 건강검진, 진료, 재활 등의 의뢰서비스 제공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재

활의학과 주임철 교수를 센터장으로 재 활의학과와 예방의학과 등 전문의인과 전담직원이 사업을 함께 추진한다. 익산시 보건소는 “원광대병원 지역 장애인 보건의료 센터선정을 축하하며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조금더 많은 관심과 건강권을 보장받을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전북=봉채영 기자